

서울, 촛불시민 50만 육박 "국민이 이겼다"

노동과세계 | 승인 2008.06.10 18:35

[사진1]

100만 촛불대항쟁에 나선 시민들이 본 행사를 앞두고 세종로 사거리로 속속 집결 중이다.

애초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6.10항쟁 21주년 기념 100만 촛불대행진은 경찰이 세종로 사거리 이순신장군 동상 주변에 대형 컨테이너 벽을 설치하는 바람에 그 맞은편 도로 왕복 8차선으로 행사 장소를 옮겼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동아일보와 동아면세점 사이 도로에 100만 촛불대행진 본 행사를 위한 무대를 설치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세종로 사거리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오후 5시부터 '고 이병렬열사 정신계승!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한반도 대운하 반대!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기름값 폭등 규탄! 공공운수노동자 총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대학교수 단체 회원 수백명, '가족 프란치스칸 정평창보' 소속 천주교 신부·수녀·수도사·신자 등 수백명, 청년학생 수백명 등 대오가 계속적으로 세종로 사거리 본 행사장을 향해 이동하는 중이다.

이들은 모두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과 손 피켓을 들고 100만 촛불대행진에 나섬으로 국민 뜻을 저버린 이 정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조합원 1천여명도 빗자루를 들고 세종로 사거리로 나아가고 있다.

서울 시청 쪽에서 세종로 사거리로 향하는 넓은 도로에는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는 각종 구호가 적힌 손피켓과 유인물들이 쌓여 있다. 시민들은 이 선전물들을 하나씩 집어 품 속에 챙기며 각자 촛불대행진에 참가할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서울시의회 코리아나호텔 앞에는 철도노조가 제공하는 화장실이 있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 오토바이가 나타나 생수를 몇 박스 내려놓고 간다.

세종로 사거리 대형 컨테이너 벽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종로 부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촛불집회에 참석해 왔다는 김시영(51세) 씨는 "이명박 대통령은 뭘 잘못알고 있으며 국민을 속이고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모든 일이 잘 될 줄 크게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시민은 "한 나라 대통령이라는 직분은 시장 시절과는 다른 자세로 임해야 하며 계속해서 이런 독선과 오만을 고집한다면 결국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국민이 보고 있고 세계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천연덕스럽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100만 촛불대행진이 예정된 7시를 1시간여 남겨둔 10일 오후 6시 현재 서울 광화문 세종로 사거리는 이미 촛불시민들로 꽉 메워지고 있다. 컨테이너 벽을 쌓고 골방에 숨어버린 이명박 정권을 이미 이긴 국민 함성이 2008년 6월 서울 하늘을 뒤흔든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